

조록형,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교회 - 칼뱅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본 교회론적 십자가 신학』, (경기: 크리스찬북뉴스, 2025)

본서는 현대 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정체성 위기와 혼란을 ‘십자가 신학의 기능적 약화’라는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 본질 회복을 위한 신학적 대안을 제시한다. 필자는 오늘의 교회가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위기를 ‘십자가의 상실’, 즉 복음의 핵심이었던 희생, 자기비움, 섬김의 정신이 약화되어 가는 현실로 규정한다. 나아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으로 세속적 성공주의와 번영 중심의 신앙 형태를 지적하며, 이는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십자가의 변질’ 문제임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다. 궁극적으로 본서는 십자가 신학의 복원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회론적 및 실천신학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도출한다. 본서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현대 교회의 신학적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건설적 제안서로서, 십자가 신학의 재해석을 통해 교회가 복음의 중심성과 신학적 정체성을 견고히 세울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본서는 십자가 신학, 칼뱅 연구, 현대 교회론, 번영신학 비판 및 실천신학적 대안을 연구하는 학계와 목회 현장 모두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I. 십자가 신학의 역사적 및 상황적 흐름 분석

본서의 전반부에서 필자는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 종교개혁 전통,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특히 J. Moltmann과 D. J. Hall)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신학의 흐름을 면밀히 고찰한다. 이러한 역사적·신학적 검토를 통해, 십자가가 단순한 속죄 사건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사랑, 고난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통치 방식을 드러내는 핵심 진리임을 강조한다. 이는 십자가 신학이 특정 시대의 교리적 표상이나 신학적 담론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갱신되어 온 복음의 중심 진리임을 논증하였다. 필자는 특히 십자가 신학의 본질이 언제나 ‘상황적’(contextual)이라는 점, 곧 하나님의 계시가 각 시대의 역사적·문화적 조건 안에 침투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어 왔음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다.

먼저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권력과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강력히 작동하던 때였다. 그는 그러한 이중의 체제 속에서 십자가를 “세상의 지혜를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였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구속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함과 고난이라는 역설적 방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결정적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기존 가치 체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난 자리였으며, 그로부터 바울의 십자가 신학은 신앙의 한 주제를 넘어 기독교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토대로 작동하였다. 바울 신학에 대한 분석은 특히 중요한데, 필자는 바울이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의 위기 속에서 십자가 신학을 어떻게 교회론적으로 적용했는지를 통해 오늘의 교회 상황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제시한다.

이어 종교개혁 시대의 마르틴 루터를 다루었다. 루터는 당시 교회를 지배하던 부패·형식주의와 인간의 능력에 기반한 구원 이해, 즉 ‘영광의 신학’(theologia gloriae)을 비판하며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crux sola est nostra theologia)라 선언하였다. 그의 십자가 이해는 인간의 지혜와 업적을 무너뜨리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복음의 역설이었다. 루터에게 고난과 약함은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자리였으며, 이는 오늘의 교회가 되살려야 할 중요한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현대 신학에서는 두 인물을 주목하였다. 먼저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폐허와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단순한 죄 사함의 사건이 아니라 삼위일체적 고난과 연대의 사건으로 재해석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통 속에 참여하시고 그 깊음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그의 통찰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 십자가 신학이 어떻게 갱신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증례였다. 또한 더글라스 존 홀(Douglas John Hall)은 북미 문명 속 번영주의와 소비주의에 물든 교회를 향하여 “고통 받는 하나님과 고통을 나누는 교회”를 주장하였다. 그는 교회가 세상과 단절하거나 도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계의 상처 한가운데에 서서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그의 논의는 번영신학으로 기울어진 현대 교회에 귀중한 성찰과 교정의 메시지를 던진다.

결국 필자는 바울, 루터, 몰트만, 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위기 속에서 십자가 신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적용되어 왔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 속에서 계속 일하고 있음을 증거하고자 하였다. 로마 제국의 권력, 중세 교회의 부패, 전쟁의 참상, 현대 물질문명의 번영 이데올로기—이 네 시대의 조건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시대의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사실을 증언한다. 십자가는 언제나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으나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비움이며,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대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방식이다. 필자는 이 보편성과 상황성의 긴장이야말로 십자가 신학의 생명

력이라 강조한다. 교회는 어느 시대, 어떤 문화 안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긴장을 잃지 않을 때에만,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

## II. 변영신학의 신학적 구조 분석과 비판

본서의 중반부에서는 현대 교회의 성공주의적 세계관과 성장 중심의 교회론에 깊이 작용하고 있는 변영신학의 신학적 구조를 분석하고 비판한다. 필자는 변영신학이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부정을 제거한 채, 축복·치유·성공을 중심 개념으로 삼음으로써 신학의 중심을 인간의 욕망으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은 현대교회 내 변영신학의 대중화 과정, 교회 성장 전략, 영성 형성의 왜곡 등 실천적 영역까지 폭넓게 다루며, 변영신학이 교회론·선교론·공동체성에 미친 구조적 손상을 지적한다.

변영신학의 근원은 20세기 초 미국의 신사고운동(New Thought Movement)과 긍정적 사고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중심에는 E. W. 케년(E. W. Kenyon)이 있다. 그는 ‘믿음의 법칙’을 주장하며, 믿음이 하나의 영적 에너지 또는 법칙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케년의 신학은 성경적 구속적 믿음을 인간의 언어적 선언과 사고의 힘으로 대체하였다. 즉, ‘믿음이 곧 현실을 창조한다’는 신비주의적 관념을 신학의 중심에 둔 것이다. 이 사상을 신앙의 원리로 발전시킨 인물이 케네스 해긴(Kenneth E. Hagin)이다. 해긴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긍정적 고백’을 강조하며, 믿음의 말이 현실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의 신학에서는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신자의 권세와 부요함,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신학적 초점은 십자가의 본질인 고난과 자기 부정을 가리는 결과를 낳았다. 오랄 로버츠(Oral Roberts)는 이러한 사상을 대중화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씨앗 신앙(Seed Faith)’을 통해 헌금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짓는 신앙 체계를 확립하며, 물질적 헌금이 곧 축복의 씨앗이 된다고 가르쳤다. 로버츠의 사역은 거대한 텔레비전 복음화 운동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복음의 중심을 ‘자기 실현’과 ‘경제적 번영’으로 이동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필자는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십자가를 결과로만 본다’는 근본적 오류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들에게서 십자가는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 아니라, 부와 성공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비움’(케노시스, 빌 2:6-8)이며, 인간의 욕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다. 따라서 변영신학은 단순한 교리적 차이를 넘어 복음의 방향을 왜곡하는 신학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것은 고난을 피하려는 신학이자, 세상적 성공을 복음의 증거로 오인하는 신학이며, 결과적으로 십자가 없는 부활과 은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위험한 신앙 형태를 낳는다. 본서는 이러한 신학적 경향을 비판하며, 다시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복음의 본래적 역설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설 때에만, 세상의 욕망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 III. 칼뱅의 삼중직을 통한 십자가 신학의 교회론적 재구성 (대안 제시)

본서의 후반부에서는 칼뱅의 삼중직(선지자·제사장·왕직)을 해석학적 틀로 채택하여 십자가 신학을 교회론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삼중직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전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며, 필자는 십자가 사건이 이 세 직분의 절정이자 성취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필자는 예배, 제자도, 공동체 형성, 선교적 실천 등 교회의 삶 전 영역에서 십자가 중심성이 회복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특히 삼중직에 입각한 십자가 신학의 재구성은 속죄론 중심의 전통적 논의를 넘어 교회론·영성·실천신학까지 확장되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독창적인 기여가 있다.

먼저, 필자는 칼뱅의 삼중직을 토대로 십자가 신학의 교회론적 재구성을 시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속죄론의 역사적 발전을 검토하며 각 시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본다.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객관적 속죄론(objective atonement)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만족되며, 그 결과 인간에게 구속과 칭의가 주어진다고 본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법적 정의의 실현에 중점을 둔다. 둘째, 주관적 속죄론(subjective atonement)은 십자가가 인간의 내면과 삶에 변화를 일으켜 공동체적 윤리와 신앙 실천을 촉발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 이 견해는 인간의 내적 응답과 공동체적 변혁을 강조한다. 실제로 십자가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동시에 갖지만, 역사 속 교회는 시대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한쪽을 강조해 왔다.

고대 교부 시대 약 천 년 동안은 이레니우스(Irenaeus)의 총괄갱신설(Recapitulation Theory)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깨어진 인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총체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는 관점으로, 로마의 지배를 경험하던 당시 유대인들이 바랐던 해방과 공동체 회복의 기대를 반영한 해석이다. 중세에 이르러 안셀

무스(Anselm)는 『Cur Deus Homo』에서 만족설(Satisfaction Theory)을 제시하였다. 그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명예와 정의가 회복된 사건으로 이해하며, 구속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만족’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종교개혁기에 루터(Martin Luther)와 칼뱅(John Calvin)은 이를 보다 법적 구조로 정교화하여 형벌대속론(Penal Substitution Theory)으로 발전시켰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간이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현대 신학에서는 십자가를 우주적 회복과 승리의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승리자 그리스도’(Christus Victor Theory) 관점이 부상하였다. 이는 형벌대속론이 구속을 개인적 차원에 한정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그리스도께서 죄·사망·악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속죄론의 전개에도 인간의 고통, 악의 문제, 신앙의 긴장과 모순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에 따라 객관적·주관적 속죄론을 통합하려는 현대적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들 역시 특정 방향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십자가 신학은 칼뱅의 삼중직이 지니는 개인적·공동체적·종말론적 차원을 반영하여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학적 재구성은 교회론적 적용을 통해 신자의 신앙과 삶이 현실의 불일치 속에서도 조화와 통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작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칼뱅의 삼중직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교회론적으로 재구성한다’는 핵심 대안의 구체적 의미를 밝힌다. 필자는 칼뱅의 삼중직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신학적 틀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삼중직을 개인적·공동체적·종말론적 차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십자가 신학을 교회론적으로 확장한다.

**첫째**, 제사장직은 십자가의 개인적 차원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십자가가 개개인의 삶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구속 사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사장적 이해는 단순한 죄 사함의 교리를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일상의 자기부인·순종의 영성을 포함한 삶의 변화로 확장된다. 제사장적 십자가는 인간의 상처와 하나님의 고통이 맞닿는 지점이며, 대속적 사랑이 인간 존재 깊숙이 스며들어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다. **둘째**, 왕직은 십자가의 공동체적 차원을 드러낸다. 칼뱅에게서 왕 되신 그리스도는 세속적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원형이다. 이에 따라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를 세우는 사건으로 이해된다.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을 때 참된 교회가 되며, 그 속에서 섬김의 질서, 상호 책임,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연대의 영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이해는 교회를 세속적 성공과 효율 중심의 조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서로의 짐을 지는 ‘십자가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선험적으로 보여주셨다. 십자가는 미래의 영광을 현재 속에 비추는 종말론적 표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예언자적 공동체로 부름받으며, 십자가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저항과 하나님의 정의·평화를 증언하는 선지자적 제자도를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칼뱅의 삼중직은 십자가의 개인적(제사장직)·공동체적(왕직)·종말론적(선지자직) 의미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 세 차원은 하나의 구속 사건 안에서 서로 얹혀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는 개인의 구원-공동체의 회복-미래의 영광을 함께 살아내는 존재로 형성된다. 따라서 삼중직에 근거한 십자가의 재구성은 기존 속죄론 논의를 넘어 교회론적·실천적·영성적 확장을 가능케 하는 가장 포괄적인 대안적 모델이다.